

광주 청년 10명 중 6명 '경제활동 無'... '그냥 쉰다' 25%

지난해 광주 청년고용률 38.35%... 전국 최하위 수준 20대 후반 비경제인구 1만명 '쉬었음'... 전남은 6천명 고성장 기업 육성 등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

지난해 광주 청년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청년 10명 중 6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 중 4명 중 1명은 '그냥 쉬었다'고 답했다.

전남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청년고용률 전국 최하, 청년실업률은 최고=13일 한국경제자총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광주 청년고용률은 상반기 38.6%, 하반기 38.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각각 하위 3위, 2위의 수치로 상·하반기 전국 평균치(상반기 46.6%·하반기 46.4%)를 밑돌았다.

청년실업률도 높았다. 전남은 작년 상반기 청년실업률 10.3%로 전국 1위를, 광주는 전국 평균인 7.4%를 기록했다.

다행히 전남은 하반기에 들어 4.9%로 전국 평균(5.6%) 밑으로 떨어졌지만, 광주는 6.3%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을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20대 전체 실업률이 높았던 지역은 대개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 또한 상반기 20-24세의 실업률(12.6%)이 25-29세(4.8%)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하반기에도 20-24세(10%)의 실업률이 25-29세보다 높았다.

전남은 상반기 20-24세 12.7%, 25-29세 8.9%였고 하반기 20-24세 7.7%, 25-29세 3.5%로 20대 초반의 실업률이 높았다.

◇취업 안한 광주 청년 4명 중 1명 '그냥 쉰다' =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노동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에서 더욱 심각했다.

작년 상반기 광주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58.3%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하반기에는 59.4%로 심화돼 한 계단 오른 상위 2위를 기록했다.

전남도 상·하반기 각각 전국 평균보다 높은 54.2%, 57.5%로 집계됐다.

심각한 건 작년 하반기 취업을 해야 하거나 취업 준비 중이어야 할 20대 후반 광주 청년 비경제인구의 24.4%(1만명)가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쉬었음'을 꼽았다는 점이다. 전남도 같은 기간 26.1%(6000명)가 '쉬었음'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 상실과 낙인효과로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청년들의 주가·혼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청년 입맛에 맞는 기업 없는 광주, 기업 육성 나서야=광주지역의 청년 취업 관련 지표가 바닥을 보이는 데에는 지역 기업 현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21년 활동기업수는 경기도 189만개로 1위, 서울이 148만개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도 38만개로 다섯번째로 많았다. 신생기업수도 경기(30만개), 서울(20만개), 인천(6만개) 순으로 많았는데, 청년고용률 순위와 맞아 떨어진다.

반면 광주는 활동기업 18만개로 세종(4만개), 제주(10만개), 울산(13만개) 다음으로 적었다. 광주는 신생기업도 2만5000개에 불과했다.

대기업 인프라 구축은 어렵더라도 고성장 기업과 가젤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는 지난 2021년 고성장기업이 86개로 세종, 제주, 울산 다음으로 적었다. 전국 고성장 기업의 2% 수준으로, 가젤기업 또한 21개로 전국(1385개) 2.1%에 불과했다.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 모두 서울(32.7%·35.2%)과 경기(27.7%·30%)에 밀렸다. 전남은 고성장기업 138개, 가젤기업 25개였다.

가젤기업은 등록된 지 5년 이내로, 최근 3년 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수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기업을 뜻한다.

취업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가젤기업 경영자가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원할 때 보다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이 요구된다"며 "노동시장 진입 초기 시점에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직장 적응교육·심리상담... '쉬는 청년' 줄인다

1조 투입, 취업초기 적응 프로그램 신설... 심리상담으로 구직 단념 예방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쉬는'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 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기로 했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을 상대로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립은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및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000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에 내년 도입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립은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연합뉴스

텔레파시 통하면 적금금리 올라간다

광주은행, 내달 29일까지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6일부터 '텔레파시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텔레파시적금' 정액적립식 월 10만원 이상 가입 후, 광주은행 스마트뱅크 앱(APP)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 신청하면 된다. 신규 및 기존 가입 고객 모두 응모 가능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및 정성 계좌 유지 고객이어야 한다.

이벤트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항목을 고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LG스탠바이미(1명), 아이패드 에어 5세대(1명)를 지급하며, 이벤트 참여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에이팟프로(2명), 갤럭시워치6(2명), 스타벅스 카프레제(100명) 기프티콘, 총 106명의 당첨 고객에게 달콤한 경품 행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스마트뱅크(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월에 출시한 '텔레파시적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탄탄한 기본금리는 물론



매월 2회 텔레파시 퀴즈를 통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변미경 디지털금융센터장은 "편(fun)세이빙 상품 출시와 더불어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영제국 훈장' 받아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영국 테이트 미술관 장기 후원 등 한-영 경제·문화 협력 강화 공로 '왕회장' 정주영 회장 이어 두번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다. 찰스 3세 즉위 이후 한국인 첫 수훈이며, '왕회장' 정주영 회장과 같은 훈장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대영제국훈장 수훈식에서 정의선 회장이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수훈했다고 15일 밝혔다.

훈장은 영국 찰스 3세 국왕을 대신해 폴린 크로스 주한 영국 대사가 전달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 경제, 문화예술, 기술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인물에게 수여된다. 영국 정부 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영국 왕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훈자가 선정된다.

정 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함께 영국 대표 미술관 테이트 미술관 장기 후원을 통한 문화예술 증진 등 한국과 영국간 경제·문화 협



지난 14일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회장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수여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훈자로 결정됐다.

특히 1977년 정주영 선대회장이 수훈한 훈장과 동일한 훈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정의선 회장은 수훈 소감에서 "대영제국훈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양국 협력과 우호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받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미래 신사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관계 강화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난 13일 열린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우수직원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 농협 '하반기 우수직원 워크숍' 실시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지난 13일 '2023년 하반기 우수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우수직원 50여명이 참석해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직원은 올해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 전남 관내 직원들이 선정됐으며, 전남본부는 매년 반기별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직원들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업무에만 집중하

느라 힘들었는데,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현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협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전남본부는 우수 직원의 마케팅 능력과 열정이 더 많은 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조달청, 2024 제도개선 사항 발굴 간담회

광주지방조달청은 15일에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4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달청 본청 계약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초청해 광주청 계약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2024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또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계약업무 역량 강화하고, 사전에 조사한 조달기업과 지역 수요기관의 의견도 건의해 다양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조달청 직원의 근무환경개선 등 11건 ▲업체 입찰시 서약서 전자제출 등 애로사항 해소 관련 7건 ▲수요기관의 선납금 관리 등 조달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관련 7건 등이었다.

노베성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일선의 계약담당자 의견을 업무계획에 반영한다면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두달 연속 올라

10월 0.15%p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달 연속 높아졌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9월(3.82%)보다 0.15%포인트 높은 3.97%로 집계됐다.

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추락한 코픽스는 5월(3.56%)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

지하다 7월과 8월 잇따라 하락했다.

하지만 9월(0.16%포인트) 상승세로 반전한 뒤 10월까지 2개월째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88%에서 3.90%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면 그 반대의 경우다.

KB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6.67(+53.42)
↑ 코스닥	809.36(+15.17)
↓ 금리(국고채 3년)	3.744(-0.113)
↓ 환율(USD)	1300.80(-28.10)